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의사항과 예방수칙

- 야외활동 시 야생멧돼지에 음식물을 주지 않기
- 발생국(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축산농가 방문 금지
- 입국 시 통조림, 우유, 햄, 육포 등 축산물 반입 안 하기

2019년 10월5일 ~ 10월 14일 제856호

충남도정



대한민국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장항, 대한민국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으로 키운다

도, 장항산단 '신산업 육성' 바이오기업 유치로 경제활성화
인력양성·상품화공정 R&D 가속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유치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감도

충남도가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바이옌를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도는 서천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단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3월 도에 따르면 장항산단은 산업 시설용지 148만 5258㎡를 포함, 총 275만 779㎡ 규모로, 2008년부터 32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 일원에 조성 중이다. 도와 서천군은 산단 내에 해양바이옌를 비롯한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 지식, 수송산업, 지역 친화형산업, 뷰티산업 등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장항산단은 21개 기업이 협약을 맺고 입주 중이거나 예정으로, 107%의 분양률을 기록 중이다. 도는 앞으로 장항산단을 중심으로 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전문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와 서천군은 산업시설용지 중 18만 8081㎡를 해양바이오 집중 유치 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대기업 계열사와 접촉하며 유치를 타진 중이다. 내년에는 해양바이오 관련 기관·협회를 통해 전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내에 해양수산부의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유치를 추진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해양바이오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양바이오 시제품 및 상품화 공정 개발 R&D도 추진해 내년 9월까지 해양생물자원 소재를 활용해 1건의 상품화 공정과 3건 이상의 시제품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등에 충남의 투자 여건과 접근성, 인프라, 추진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유치 활동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 한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장항생태산단은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며,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충남이 해양바이오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미래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바이오산업을 비롯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조성, 부남호 해양생태복원, 해양치유 및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투자입지와·해양정책과 041-635-3394·4764



백제의 밤을 달군 멋과 흥 지난달 28일, 공주시 신관공원에서 제65회 백제문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1500년 전 백제의 의식주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문화제는 오는 6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대에서 다양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사진은 공주 신관공원 주무대에서 개최된 공식 개막식에서 백제의 사계를 주제로 주제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일제 단속

무허가·무면허, 어구위반 등

민간 참여로 준법조업 정착 유도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 ▲포획 금지 제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한 ▲불법 양식시설 ▲면허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수산자원보호관 리선도 합동단속 참여를 장려하고, 불법어업 신고센터(1588-5119)도 운영하는 등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의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어업인 교육 및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과 041-635-4136

먹는물·수질 분석능력 '최우수'

6년 연속 국제 공인 인증
37개 평가항목 모두 '만족'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이 6년 연속 먹는물·수질분야 측정·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 시그마알드리치 주관 국제 공인 숙련도 시험에서 먹는물·수질분야 '최우수 분석기관(Excellent Laboratory)'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숙련도 시험평가는 7~8월 2개월간 진행됐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분야(농약 성분 다이아지논 등 17개 항목)와 수질 분야(유기화합물질 벤젠 등 20개 항목)에 참가했다.

평가 결과, 37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표준점수 : Z값 0~1.0이하)' 평가를 받아 시험분석 기술의 정확성·정밀성 등을 확인했다.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



먹는물 분야 인증서(위)와 수질 분야 인증서

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측정·분석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심 장비 보강 등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91

충남의 '해양굴기'...2~3년 해양新산업 골든타임

도정 톨아보기

충남주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속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바이오·해양치유산업 육성 등 서해 해양 신산업벨트 구축

갯벌 간척은 식량 증산이고, 애국이라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20년 전까지도 그랬다. 갯벌이 생명 다양성의 보고이자 무궁무진한 활용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깨닫기 전이다. 충남은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서해 갯벌'을 주목하고 있다.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 소금과 머드, 갯벌, 해사 등 유럽 못지않은 해양치유 지원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도가 미래 먹거리로 해양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미중무역 갈등 등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필요해졌다. 미래 혁신성장의 다변화다.

충남도의 해양 산업 핵심 전략은 3가지다. 첫째 해양 생태 복원이다. 서해안 최대 어패류 산란장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복원과 국가해양정원 조성이다. 닫혀 있는 하구를 열어 10km의 해안선과 196만㎡의 갯벌을 복원한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으로 생산유발 효과 4700억 원, 고용유발 2만 명 이상이 기대된다.

둘째 역간척과 해양 치유산업이다. 수질 6등급으로 쓸모가 없는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이다. 해수를 유통시켜 해양생태계를 복원한다. 우리나라 최초다. 어족자원을 살려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바다생태 복원을 지렛대 삼아 정체된 태안 기업도시도 활성화한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이란 비책처다.

셋째 해양바이오산업이다.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단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다. 해양수산 동식물과 미생물을 활용하는 식품·의약·화학·에너지 등 관련기업을 유치해 해양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도는 해양바이오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 공정 개발 R&D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2~3년은 해양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다. 충남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철강 등 충남 주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 출구전략을 해양자원에서 찾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해양치유와 바이오, 네덜란드에서는 역간척과 해양관광산업의 성공사례를 목격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서해 신산업벨트 구축이다. 충남의 해양산업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성장이라는 다부진 꿈이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힘 합쳐

전문가·도민 합동토론회 개최
“행안부 장관 결정권 위임 부당
중앙분쟁조정위, 조정 역할해야”

충남도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도민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달 27일 예산군 삼교읍 내포출장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률전문가와 도의원, 당진대학위 공동위원장,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소송 진행상황 및 대응계획 설명, 전문가 주제발표,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 변론 이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보충서면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자치법 매립지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한 정철 국민대 교수는 “행안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것은 백지위임한 것으로 법치국가의 의회보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북현 호원대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매립지 관할의 결정 기준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립지 결정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 범위’를 발표한 박천사 도 자문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그동안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의 역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보충서면에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도의 관할권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607

공공저작물 개방 문 ‘활짝’

도 생산 보고서·영상·사진 등
“자유롭게 활용·가공하세요”

충남도가 신속하고 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말한다. 도는 그동안 공공저작물 등급을 부여하지 않아 공유할 수 없었던 보고서를 비롯해 동영상·만화·사진·음악 등을 내용에 따라 공공누리 1~4유형으로 나눠 표기할 예정이다.

도에서 개방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도민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도 저촉 받지 않는다. 이번 개방·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충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알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도에서는 공공저작물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운영하고, 담당자 대상 공공누리 특별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로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널리 개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정책과 041-635-3823

도정만평

설인호



바다에 돌담을 쌓아 물고기를 잡다

도서(島嶼)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⑨독살

자연의 원리와 노동력의 결합
돌담 쌓아 밀물 때 고기 가둬

경제력 갖춘 사람들의 어장이
각광받는 체험·관광자원으로

‘독살’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 연안 지역에 넓게 분포하며, 효자도·원산도·장고도 등의 일부 섬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형 등을 활용하여 해안가에 돌담을 쌓은 것을 독살이라고 한다. 밀물 때 들어온 고기가 썰물 때 돌담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들’, ‘족대’, ‘반두’ 등으로 부르는 뜰채를 이용해서 고기를 손쉽게 잡았다. 어살[漁筭]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데, 다만 돌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독은 돌을 뜻하는 사투리이다.

효자도의 경우는 돌담의 날개가 100여m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컸다. 돌 틈에는 잔돌을 가져다 메꾸었다. 돌담의 높이는 4~6m로, 물이 들어와도 돌을 넘지 않을 정도로 쌓는다. 그리고 얇은 돌담 위에 싸리나무 등으로 발을

쳤다. 삼각형의 끝에 그물이나 발로 임통을 설치하고 고기를 모았다. 이곳에서 봄에는 조기와 갈치, 여름에는 멸치, 가을에는 전어와 송어를 잡았다. 독살을 이용하면 굳이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어획량이 풍부하였다.

돌담을 쌓을 때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완성 후에도 1년에 2~3차례씩 파도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독살일지라도, 가족 노동력만으로는 모자라 일꾼을 고용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독살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독살은 그 권리가 매매되거나 임대될 주기도 하였다.

독살은 각종 어로 장비와 어법(漁法)이 발달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요즘은 멸실되어 가는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체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독살은 서해안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발달시킨 전통 어법 중 하나이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전통 어로 방식과 매매 관행 등 생활 문화의 다양한 부면을 엿볼 수 있다.

/민정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부장



태안군 동산리의 독살에서 어부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모습

병술만공동체 자율관리어업 ‘전국 최고’

전국 1105개 공동체 중 1위 영예
지속가능 어업·수익 확대 높은 평가

태안 병술만 공동체가 꽃지해수욕장 인근 작은 어촌마을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공동체로 발돋움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19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태안 병술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위원장 정성준)가 전국 최우수 공동체에 선정돼 장관 표창과 상금 1억 원을 수여받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평가

는 전국 1105개 참여 공동체의 등급별 순위를 확정하고, 사전에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공동체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과한 6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병술만 공동체는 구성원 스스로 어장 환경과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판매장 등 수익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적극적인 귀어인 유입, 자율관리 어업 교육 등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김종락 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

소장은 “병술만 공동체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어촌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모든 공동체가 선진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현장지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에서는 2015년 태안 대야도(우수)를 시작으로 2016년 태안 곰섬(최우수), 2017년 서산 중앙(장려), 2018년 서산 웅도(최우수), 올해 태안 병술만(최우수)까지 5년 연속 우수 공동체를 배출했다.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95

스마트폰으로 영농일지 쓰세요

‘파트너’ 프로그램 보급 주력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스마트폰으로 영농일지 기록과 소득분석이 가능한 농가경영기록장 ‘파트너’의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파트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영

기록장으로, 영농현장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 입력 ▲실시간 결과 분석 등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된 청년농업인과 귀농인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도내 농업인의 편리한 경영기록을 돕기 위해 2017년 개발한 파트너는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기능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온라인 반응형 웹(Web) 방식으로 개발한 파트너 프로그램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작목을 선택해 간단한 농장 현황 자료만 입력하면 영농일지와 작목별 수입·지출 관리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원 041-635-6091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충남에서 세계로'

행사개요

주제 :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지역에서 세계로'
날짜 : 2019년 10월 21일(월)~10월 22일(화)
장소 : 스플라스 리솜(예산군 덕산면 소재)
참여 : 국제기구, 정부기관, 환경단체, 전문가, 기업, 주민 등 500여 명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의 대응이 국내·외 공조와 협력을 통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도는 오는 21~22일 양일간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국내 환경단체와 전문가, 주민 등 500여 명을 초청해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1년 발효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의한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도는 탈석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도민 76%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0%가 에너지 전환에 찬성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정책 연대는 물론, 국제환경기구 및 탈석탄동맹 가입국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들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첫째 날에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내·외 이슈·현황 공론화를 목적으로 세션별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 소재 지역 공동세미나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 전환 ▲국내·외 탈석탄·기후변화 대응 정책 ▲충청남도 미세먼지 정책 포럼 등 네 개 세션으로 마련된 학술회의에서는 국·내외 환경·에너지 관련 단체가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탈석탄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공식일정이 진행되는 2일차 오전에는 개막식에 이어 충청남도 '기후비상상황' 선포식과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대만·몽골)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이 진행된다.

공동선언을 통해 도는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가칭)동아시아 지방정부



21일(월) - 1일차 일정(14:00~17:40)

세션별 학술회의

세션1 전국 석탄화력발전 소재 지역 공동세미나
주제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 11개 지역이 함께 해법을 찾다.

세션2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 전환
주제 :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국외 정책연수 보고대회 및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전환

세션3 국·내외 탈석탄·기후변화 대응 정책
주제 : 탈석탄 기반의 지방정부 협력방안

특별세션 충청남도 미세먼지 정책 포럼
주제 :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충남

22일(화) - 2일차 일정(10:00~18:00)

공식 행사(10:00~12:00)

개막식, 충청남도 '기후비상상황' 선포,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 특별·기조연설, 지역에서 세계로 퍼포먼스

발표 및 토론(13:30~18:00)

세션1 각 국가의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정책·사례
-한국, 미국, 유럽, 독일, 인도

세션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노력

기후환경연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대사가 특별·기조연설을 펼친다.

이와 함께 충남에서 시작된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 나갈 기원하는 '지역에서 세계로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메인 행사장 로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위한 부스와 기후변화·에너지전환 전시 홍보부스가 운영돼, 관계

자 및 현장 참가자의 의견 청취와 인식 제고를 돕는다.

컨퍼런스 참석을 원하는 도민은 전화(070-4948-1116)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2714

/손유진 syj0319@korea.kr

“에너지전환 로드맵, 충남이 선도”

24일, 국회서 공론의 장 마련
조기폐쇄 시나리오·쟁점 공유
“지역에서 세계로, 기후변화 대응”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을 제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및 제도화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수명연장 중단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가 전력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단계적 폐쇄를 위한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방안, 도의 탈석탄 추진 전략 및 사업에 대한 공유와 평가 등이 이뤄졌다.

여형범 충남연구원과 이소영 변호사가 ‘충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고,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정병락 도 미래산업국장,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 김순태 아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여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토론회 메시지 ▲단계적 폐쇄 시나리오 ▲조기폐쇄 쟁점 및 제도개선 제안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76%가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80%는 에너지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며 “충남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원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변화 대응 리더로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정책 연대는 물론, 국제환경기구 및 탈석탄동맹 가입국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했다”며 “각계의 협력과 공감을 높여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함과 동시에 시대적 과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오는 21~22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지역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산업국 041-635-3456

국내 첫 ‘한국어촌민속마을’ 급물살

보령 효자도·태안 가경주마을 선정
설화 스토리텔링·민속문화 재현 등

전통 어촌 가옥과 테마공원, 체험관광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국내 최초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사업이 연내 본궐도에 오른다. 어촌민속마을은 라져가는 전통 어촌마을의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어촌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가 민선7기 들어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어촌민속마을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신청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대응을 통해 지난해 12월 보령 효자도와 태안 가경주 마을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효자도에는 1.1㎢ 규모로, 효(孝)를 주제로 어촌민속마을을 조성해 효자도 설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머님의 섬’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통 어업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

효자도 어촌민속마을 조성 사업은 다음 달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일원에 조성하는 어촌민속마을은 선조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독살과 해루질 등 어구·어법 전시·체험장을 만든다. 패총박물관을 민속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귀어인 유입 프로그램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접안시설을 보강, 전통포구 복원, 해안가 산책길 보강, 갯벌 생태 관찰로 설치, 전통어선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가경주 어촌민속마을은 내년 초 공사 시작을 목표로, 이달 중 실시설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각 어촌민속마을 조성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효자도가 132억 2500만 원, 가경주 마을이 84억 5100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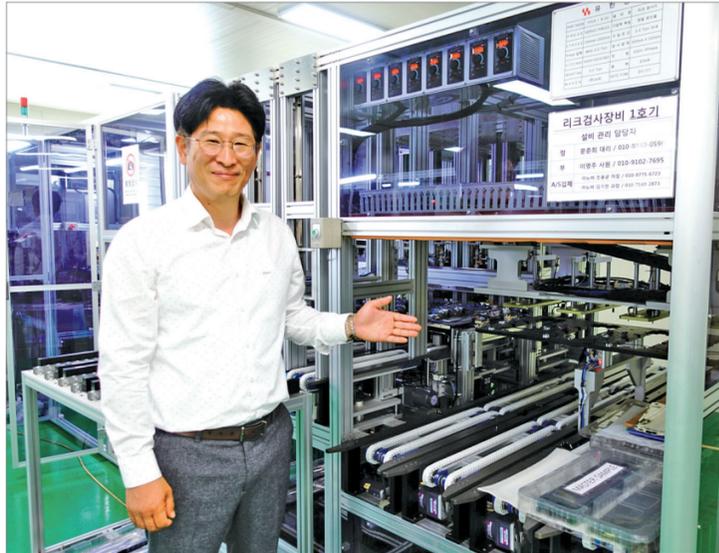
도 관계자는 “해양신산업의 일환으로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추진, 어촌민속마을이 서해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66

달리는 미래에너지 수소차 핵심부품 국산화 '선도'

스타기업 (주)유한정밀

자체 개발 스택 금속분리판 생산
현대자동차 넥쏘 등 독점 공급
수소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기대



정기오 자동차사업부 이사가 리크 검사기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수소경제 시대를 선언했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경제 주요 분야에서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단연 수소차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주)유한정밀(대표 송유성, 아산 소재)은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의 핵심인 스택, 그 중에서도 금속분리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유한정밀은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3년 출시한 '투싼ix'에 이어 차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NEXO)'에도 연료전지 금속분리판을 단독 공급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하나의 스택은 총

220개의 셀로 구성한다. 셀은 금속분리판과 이를 밀봉하는 가스켓, 기체 확산층(GDL), 막전극접합체(MEA) 등으로 이뤄진다.

금속분리판은 GDL과 MEA의 지지대 역할을 하며 수소와 산소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수소전기차 1대당 약 1000여개에 달하는 금속분리판이 들어간다. 금속분리판

의 핵심 기술은 0.08mm~0.1mm, 머리카락 굵기만큼 얇은 소재를 성형하면서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1984년 창업해 프레스 금형 기업으로 회사의 내실을 다져온 유한정밀은 2008년 현대자동차 마복연구소의 제안으로 수소차 금속분리판 대량생산에 도전했다.

이를 위해선 금속분리판 성형 자

동화 금형기술이 필수적이었다. 프레스 설비와 이송장치, 금형 3가지 조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설비가 필요했지만 국내 어느 금형 업체도 성공하지 못한 고난이도 기술을 개발해야 했다. 초 고난이도 성형기술인데다 국내 최초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랐다.

수많은 코어 가공과 시뮬레이션, 원소재 연신률을 적용한 금형 설계,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최신 검사장비 도입 등 유한정밀은 지난 12년간 기술 개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 90%에 달했던 불량률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결국 2013년에는 현대차 1세대 수소전기차에 금속분리판을 단독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018년에는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금속분리판 연속성형 금형 개발에 성공했다.

정기오 자동차사업부 이사는 "타 기업이 못하는 금형, 타 기업이 포기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자는 본사의 경영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다"며 "국가의 미래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해 기업의 제2의 성장동력,

미래먹거리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620만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한 (주)유한정밀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주)유한정밀은 향후 생산성성을 금형의 내구성을 대폭 향상 시켜 생산성을 끌어올 수 있는 공법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형 소재 개발, 코팅 기술, 금형 소재 열처리 기술과 지난 10여년의 기술개발 노후를 접목해 현재 30만타 코어 금형에서 100만타까지 견딜 수 있는 금형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 간 설비에 약 175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150명의 인력을 충원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기오 이사는 "금속분리판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는 지난해 대비 600% 가까이 매출이 신장했다"며 "수소경제와 함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 대표 스타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혜동 khd1226@korea.kr

인구 13억 인도시장 "충남배로 공략"

中 떠난 '배 시장', 3만 달러 성과
고관세·40일 사전검역 '벽' 과제

충남도가 충남산 배 수출 확대를 위해 인구 13억 인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며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26일 도청에서 인도 최대 과일류 수입유통업체인 아이지 인터내셔널사(IG International)의 지안찬드 아로라(Gianchand Arora) 회장과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수출 상담에는 나소열 문화체육부차사를 비롯한 아산원에농협 구본권 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수출팀장, 농협충남지역본부 부분부장 등이 참석해 충남 배의 높은 수출역량과 유통 인프라를 설명,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 인터내셔널사는 인도 전역에 27개 사무소와 16개 저온창고, 85대의 운송차량을 보유, 세계 22개국에서 31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해 하이퍼시티, 루루 등 28개 아울렛 등에 공급하



인도 최대 과일류 유통업체인 아이지 인터내셔널사 관계자와 배 수출 상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대형 수입유통업체이다.

인도는 지난해 폭발적으로 배 수출이 증가한 베트남 시장과 유사해, 현재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저가 중국산 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충남은 이러한 기회를 살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인도시장에 진출, 올해 7월 기준 3만 달러 이상 수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인도 시장은 3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산 배의 인지도가

낮아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병해충 방제를 위해 0°C에서 40일간의 저온저장을 실시한 후 수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전 검역 요건도 지켜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인도를 향후 농산물 수출유망시장으로 판단하고, 도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배 수출을 확대하고, 버섯 등 다른 품목의 진출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3

충남6차산업 제품, 추석 매출 세 배 '경증'

온·오프라인 기획전서 15억 성과
유통 채널 다변화·제품 우수성 입증

충남도가 도내 6차 산업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기획전을 지난 추석시즌 진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경증 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6차 산업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지난달부터 추석까지 진행했다. 롯데백화점과 충남 안테나숍 등 오프라인을 시작으로, 온라인

에서도 오픈마켓 11번가, 유튜브 쇼핑몰 데마시안 등에 기획전을 펼쳤다. 홈쇼핑에서도 추석 특수 품목인 떡 등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상품을 구성해 판매했다.

그 결과, 14억 9400만 원이라는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매출이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롯데백화점(잠실·본점)에서 약 7000만 원의 매출을, 안테나숍(대전·천안·부여)을 통해서 1억 6200만 원의 실적을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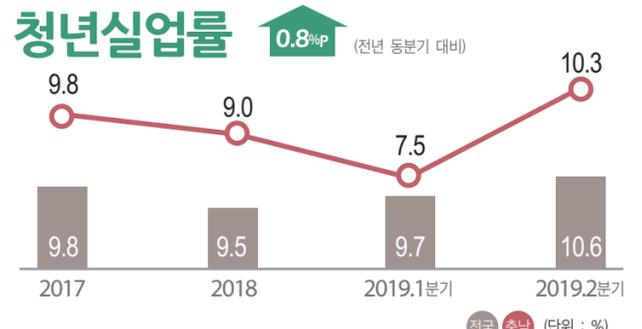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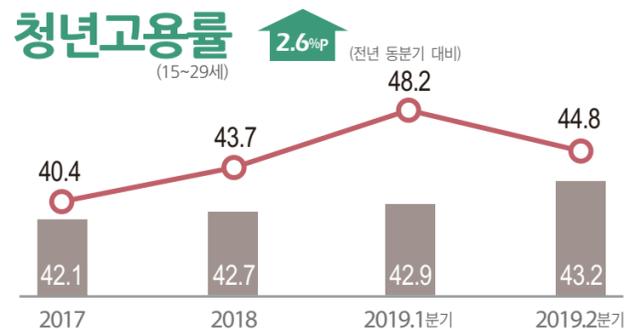
성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픈마켓과 유튜브를 통해 각각 1억 9000만 원, 6200만 원 등의 매출을 거뒀다.

특히 세 차례 진행된 홈쇼핑을 통해 약 1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경신했다.

이처럼 기획전 매출이 급증한 요인은 안테나숍 입점 품평회 등에서 검증된 제품을 엄선하고, 유통 채널별로 개최한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구성해 사전 마케팅 전략을 수립·준비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촌활력과 041-635-4078

충청남도 8월 일자리 상황판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시작 천안·아산 동참, 25일까지 신청

충남도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난 1·2분기 신청을 접수받았다. 지난 1·2분기 13개 시·군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참여함에 따라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지난 1·2분기에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천안박물관·서북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3분기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서류가 기존 8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돼, 사업주의 신청 부담이 완화된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한 치의 틈도 없이... 'ASF 충남 경계 못 넘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달 경기도 파주를 비롯해 4개 시·군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며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고 있는 충남도의 방역도 더욱 촉촉해지고 있다.

충남도는 1227개 농가에서 24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 중심지다. 특히 지난달 30일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들어온 홍성군에서만 58만 5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계를 중심으로 방어선 사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나 충남도의 물 샬 틈 없는 방역망이 검증됐지만, 도는 이번 신고를 계기로 전방위적 방역·예방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인천·강원 돼지 등 반입 막고 소 반입·반출 제한해 교차오염 방지

지난달 30일 충남도는 경기, 인천, 강원에서 사육한 돼지와 분뇨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돼지정액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이동차량과 축산 종사자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세 지역에서 사육된 소의 충남 반입은 물론, 도내 사육소의 반출 금지 조치도 지속한다.

또한 ASF 방역요령 숙지를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도내 양돈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에서는 특히 사료 제조업체의 운송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자율 방역체계 강화를 당부하며 차량과 개인소독 요령을 전파했다.

도 관계자는 "1%라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면 '매뉴얼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군과 협조 체제 아래 차단방역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에 따라 청양군은 야생 멧돼지로부터 매개 전파가 우려되는 방목돼지에 대해 사육 농가 4곳과 함께 숙의 끝에 200두의 살처분을 결정하는 등 공격적 대응으로 방어선 사수를 도왔다.

또한 도는 국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모돈에서 발병하는 만큼, 모돈을 작업하는 4개 도축장 6개 장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오는 15일까지 돼지 정액 반입을 금지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거점소독시설·방역상황실 점검 예비비 22억 투입, 선제적 지원

도는 지난달 24일 도내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충남도 대응 상황

- ▶9월 24일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 ▶9월 25일 긴급방역 대책 영상회의 개최
 - 축산차량 이동중지 이행 여부 철저 확인·점검
 -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소 24시간 운영 및 소독·통제 철저
 - 역학농가 관리 철저
 - 농장 진입로 생석회 살포, 출입자 통제
- ▶9월 26일 시·군 간 역할 분담 및 대책반 운영, 야생 멧돼지 집중 관리
 - 도 : 4팀 16명 대책반 구성 운영 (멧돼지관리팀, 잔반관리팀, 가축분뇨관리팀, 매몰지관리팀)
 - 시·군 : 30명 내외 자체 상황반 편성(멧돼지 예찰·포획 등 감염 예방·차단)
- ▶9월 27일 긴급방역비 22억 8100만 원 투입
 -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14억 5800만 원)
 -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약품 구입(6억 1000만 원)
 - ASF 정밀검사 7300만 원
 - 거점소독시설·통제 초소 추가 설치·운영(20개소~31개소)
 - 경기·인천·강원 소(牛) 반입·도내 사육소 반출 금지
- ▶9월 29일 홍성 도축장 폐사축 발생, 의심신고
 - 도축장 및 농장 초동방역팀 투입
 - 사람·가축·차량 이동 통제, 긴급 방역
 - ※음성 판정
- ▶9월 30일 농장초소 추가 설치(총 145개소)
 - 역학농가 200호 이동제한 유지
 - 충남産 돼지·분뇨 반출금지 연장(10.1~10.15)
 - 모든 작업 도축장 환경검사
 - 배합사료 제조업체 대상 방역요령 설명회
 - 천안 병천 거점소독시설 점검
- ▶10월 1일 돼지정액 반입금지 시행(10.1~10.15)

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한 이후, 숨 가쁘게 사전 방역을 추진 중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통제초소반 ▲환경정비반 ▲인체감염대책반 ▲홍보반 ▲협업지원반 등 총 7개 반 ??명으로 편성 운영 중이다. 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위기를 재난상황으로 인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

축하고 차단방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도민 행동요령 전파와 유관기관 협업 관리를 지원한다.

또 지난달 27에는 도 예비비 8억 6900만 원을 포함한 22억 8100만 원의 긴급방역비 투입을 결정했다.

예비비는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14억 5800만 원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약품 구입

6억 1000만 원 ▲ASF 정밀검사 7300만 원 등 인력·장비·약품을 구입·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앞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31개소로 추가 설치한 데 이어,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기른 소에 대한 도내 반입을과 도내 사육 소의 경기·인천·강원으로의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지만,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18호 태풍 미탁이 지나간 이후엔 석회 추가 살포 및 발생지역 인접 하천 오염 점검 등 방역 환경 변화로 인한 위기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2일부터 지정도축장 운영 등 도내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 주력

지난 1일 충남도는 역학 관련 조치 및 경기·인천지역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122명에 대한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이동제한 기간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은 농가에 대해 지정도축장 조건부 출하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이동제한이 유지 중인 314호 역학농가의 집중관리와 농장초소 출입 관리를 지속한다.

한편 도내 거주민 중 경기·인천 지역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인력이 122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철저 관리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장에서 대인 및 의복 소독을 강화하고, 도내로 귀가한 후 10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일부터 시행될 역학농가 돼지 출하와 관련해서는 가축방역관의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은 농가에 한해 지정도축장 출하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때도 일반 도축물량과 구분해, 이동제한 농가 돼지를 나중에 도축하고 도축 후 일제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

생축을 운반하는 차량은 하루에 이동제한 중인 농장의 돼지만 출하할 수 있으며, 도축 당일 세척과 소독을 마친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필증을 받아야만 다른 이동제한 농가에서 상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최초 발생지역인 파주 과평면에서 추가로 1건이 양성으로 확진돼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을 뿐만 아니라, 태풍 북상 전후 방역 시스템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차단에 집중하자"며 동참을 당부했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손유진 syj0319@korea.kr

서해안 철도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충남의 미래

⑧철도 중심 교통체계

충남은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 구축으로 서해안 철도시대를 열어가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국가 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충남의 서해안 산업지역, 문화·관광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망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사전에 구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철도의 다수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효율적

인 철도망 연계,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향상 등을 제안한다.

첫째,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단 연계교통체계가 필요하다. 철도는 지역 간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전수송(door to door)이 어려운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철도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운송수단이 철도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철도와 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Park & Ride 시스템,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이 필요하고, 물류 부문에서

는 2개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으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팔레트 적재화물을 문전까지 일관수송하는 인터모달 수송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철도망 연계와 서해안 관문항만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의 서해안 철도시대를 열어가 중요한 노선이다. 서해선은 최고속도 250km/h로 운행하여, 수도권 서부지역과 연계(대곡~소사, 소사~원시노선), 서울의 중심부인 여의도까지 연계(신안산선)되는 노선이다. 현 시점에서 서해선과 연계되는 철도는

환승이 아닌 직결로 구축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또한 충남의 항만이 국가행정수도(세종시)와 충청권의 관문항만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뿐만 아니라 동·서축 철도망 구상도 동시에 필요하다. 대산항을 연결하는 대산항선-아산석문산단선(에타면제사업), 보령(신)항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 태안 안흥항, 서산 해미공항,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내포철도, 국가의 중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이 모두 충남의 서해안 교통·물류 거점과 국토의 중부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철도망 계획(안)이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철도역 접근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다양한 연계교통수단과 환승편의 제공이 중요한 숙제이다. 충남은 인구밀집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충남 전 지역에 철도서비스 수혜가 골고루 전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역을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은 충남의 편중된 철도서비스 수혜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형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 서해 ‘연안 크루즈’로 누빈다

15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관광·도서 연계·낚시·생태관광 등
체류형 프로그램·관광시설 확충
“해양관광 새 모델로 활기 모색”

충남도가 서해 연안에 중·소규모 크루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욕장 등 전통적인 해양관광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해 해양관광산업의 새 활로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24일 도는 연안 크루즈를 통해 도내

유·무인도서의 각종 관광 자원과 기존 해운업을 연계해 특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접안시설과 숙박 등 편의시설을 보강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의 연안 크루즈 도입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우선 ‘월나잇 크루즈’와 ‘디너·런치 크루즈’ 등 2일 이내 단기 관광용 크루즈를 모색 중이다. 승선 인원 500명 이내로, 기존 소규모 여객선 등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도내 215개 유·무인도서 연계 크루즈 도입도 중점 검토한다. 각

섬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도서 내 설화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해 크루즈 이용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급증하고 있는 낚시인구를 겨냥해 바다낚시를 주제로 한 크루즈 운영도 살핀다. 바다낚시 크루즈는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높은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주요 낚시 포인트 지역 무인도 내 소규모 접안시설 설치 등을 세부 사업으로 잡고 있다.

이밖에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부응해 해양생태와 연관된 크루즈 개발도 검토 중이다.

연안 크루즈 육성을 위해 도는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박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체류형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생태 탐방 관광지 구축, 유·무인도별 낚시 관광 수요 창출 지역 선정, 무인도 데크 설치, 유인도 숙박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 시책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해양정책과 041-635-4767



도내 응도에 입항 중인 여객선의 모습

어린이·임신부·만 65세 이상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서 실시

충남도는 오는 15일부터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도내 1406개소, 전국 2만 420여 개소)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신부 건강보호 및 6개월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산모수첩을 제시하면 접종 가능하다.

접종 기간은 ▲어린이(1회 접종대상)·임신부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 ▲만 75세 이상 10월 15일부터 11월 22일 ▲만 65~74세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1월 22일 이후에는 보건소에서만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므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o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대상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 받는 것이 좋고, 예방접종 후에는 20~30분 간 이상반응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귀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건정책과 041-635-4317

도내 대학생 우수 자원봉사 활동 뽑내

상위 5개 팀, 해외봉사 기회

2019 충청남도 대학생 자원봉사 콘테스트 본선 참여 현황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7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도내 11개 대학교 15개 봉사동아리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충청남도 대학생 자원봉사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대학생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도내 대학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에는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5개 팀이 본선대회에 진출,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분야에 맞는 다양한 활동 사례를 선보였다. 이날 최종 선발된 5개 팀 14명의 대학생들에게는 오는 12월 해외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

●충남도자원봉사센터 041-635-1365

번호	학교명	동아리명	활동내용
1	혜전대	동행과 나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문화복지 활동
2	공주대	아트세라믹	문화체험 소외대상에 체험활동지원
3	신성대	초이	독거노인·르신을 위한 시설방문
4	한국기술교육대	세이버푸드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교육 실시
5	나사렛대	사회봉사동아리	복지사각지대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봉사
6	남서울대	어썸(awesome)	마을 환경개선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7	선문대	아산지중해마을 부엉이 영화제	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사회 문화봉사
8	한서대	Afri	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 농촌봉사
9	경찰대	청람멘토링 '봄꽃'	멘토링 활동(정서 안정·학습교육)
10	청운대	NIC	어르신 건강·사고·치매 예방활동
11	한국기술교육대	나눔-e기술봉사단	지역주민 전기안전관리 활동
12	혜전대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혜전대 캠퍼스 클럽	취약계층 시설방문 자원봉사
13	신성대	HONK(홍)	농기계 정비, 집수리 등
14	선문대	떡잎마을방법대	취약계층 아동 상담·학습지도
15	순천향대	청순열매	초등학교 과학프로그램 봉사활동

충남 한우 ‘후보씨수소’ 선정

도 축산기술연구소 김정우 1두
제77차 당대검정 통과



후보씨 수소로 선발된 김정우한우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신용욱)는 자체 생산·검정한 한우 1두가 보증종모우(씨수소) 선발을 위한 제77차 당대검정 결과, 후보씨수소로 선발됐다.

당대검정은 혈통등록 암소에 대한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 중 우수한 능력을 갖춘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순이다. 이번 검정에는 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생산한 1두를 비롯해 전국 475두 중 37두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됐다.

이번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 인계돼 3년 동안 자손의 능력을 검증하는 후대검정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증씨수소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육종센터로 지정돼 당대검정을 진행 중이며, 연구소에서 생산된 후보씨수소가 보증씨수소로 선정되면 생산 정액의

50%를 도내에서 활용할 수 있어 한우 개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능력 검정을 통해 많은 씨수소를 선발, 충남만의 보증씨수소를 선발·활용함으로써 도내 농가 한우 개량과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씨수소 생산이 가능한 육종농가(육종센터 5곳 포함)는 전국적으로 105개 농가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도 축산기술연구소를 포함해 7개 농가가 육종농가로 선정돼 능력검정에 참여하고 있다.

●축산기술연구소 041-635-7822

간추린 도정

유원·운동시설 집중 점검

충남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도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원시설 19곳, 운동시설 20곳, 집회장 16곳, 수련시설 9곳, 공연장 3곳, 전시장 1곳, 전망대 1곳 등 총 69개소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군을 비롯한 건축, 전기, 가스안전 등 민간 및 공공기술자를 참여시킨 도 합동 안전점검과 시·군 자체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요 건축 구조부의 지반 침하, 변형·균열·누수 등 결함 여부 ▲전기·가스·기계 설비의 관리 상태 및 안전성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사항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즉

시 시정이 불가할 경우 관련 부서 통보 등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 추적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재난과 041-635-2182

‘유류사고’ 공동방제로 극복

충남도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내 유류 오염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양환경공단과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해양 환경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연안 오염 예방 및 해양 환경 보전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정책과 041-635-4769

지역수요기반 콘텐츠 제작지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지역수요 기반 제작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9월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시·군 맞춤형 킬러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내 지역자원 발굴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고유의 우수 문화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제조 기업체 및 콘텐츠 스타트업의 역량을 증대하고 나아가 유망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지역 경제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tia.kr>)를 참조하거나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기업육성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54

양극화 대책, 전문가 머리 맞대

충남도가 소득·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30일 도청에서 ‘양극화 대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극화 진단내용 연결성 강화 ▲정책방향 설정 초안 적정성 ▲양극화 진단 지표관리 체계 구축 방향 ▲양극화 대책 기본계획 명칭 검토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발판 삼아 ‘충남형 양극화 대책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환 행정부지사는 “3대 위기 극복은 도정이 기본 목표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위기극복 선도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과 041-635-2213

경제진흥원·독립기념관 MOU

충남경제진흥원은 지난달 27일, 독립기념관과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생산품 판로 및 홍보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 경제 주체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 도내 중소기업 내수 부진 타개 및 매출 향상을 위해 독립기념관 대표 문화행사인 ‘단풍나무 힐링축제’와 연계해 ‘2019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인재 선순환 구축 및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대학생의 전공과 연계한 독립기념관 직무별 현장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이름 프로젝트 사업’ 등도 추진한다.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50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역량 결집’

청양에 2020년까지 320억 투입해
농산물체험·판매 등 복합공간
기업-지원조직 간 네트워킹거점
“지속가능 생태계 기반될 것”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지로 전북과 경남 등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신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 통합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지역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원조직의 협업·네트워킹·혁신 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청양군 구 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리모델링(7885㎡)과 신축(4924㎡)을 통해 조성되며, 농산물체험·판매·레스토랑, 리빙랩·메이커스스페이스, 입주공간,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도가 사업을 맡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40억 원을 포

함한 총 32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산자부 사업계획 설명회에 참석, 3월 시군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청양군을 선정했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 2020년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2020년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할 예정이며, 내년 2~3월 산자부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가속할 방침이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혁신타운 유치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4

충남도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 대학교, 중간지원조직과 손을 맞잡고 역량을 결집한다.

도는 지난달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청양군·청운대·백석대·도립대·충남 사회적경제협의회·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및 중간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을



지난달 23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교, 중간지원조직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과 지역에너지계획 “함께해요”

13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생활밀착형 에너지 과제 발굴

충남도가 지난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제6차 도민 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도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실용적인 생활밀착형 에너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도민제안 공모 분야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에너지 거버넌스 및 에너지 복지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제안 사업이다. 다만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등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공모 자격은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공모내용과 제안신청서는 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의 도정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도 민관협치 홈페이지(도홈페이지 ➝ 소통 ➝ 민관협치)의 ‘충남도가 묻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제안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25msh@korea.kr), 팩스(041-635-3039)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생활실용적이면서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너지과 041-635-3457

반듯하다, 뽀뽀하다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23)

발음 편하게 ‘ㅎ’ 생략해

머리론 서울말, 입으론 충청말

고향에서 충청도말을 쓰던 사람도 서울에 가면 서울말을 쓰게 된다. 다들 서울말을 쓰는데 나만 충청도말을 쓰는 것은 어색하다. 눈치도 보인다.

서울말을 할 줄 아는데 굳이 충청도말을 써서 튀어 보일 이유도 없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 서울말을 쓴다.

“당신 충청도 사람이지?”

신기하다. 서울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린다. 특히 충청도 어른들은 바로 들킨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대략 충청도 말법과 발음이 서울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반듯하다, 뽀뽀하다’를 들어보자.

‘반듯하다’는 ‘굽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가지런한 것’을 이르는 말

이다. 이때 ‘-듯하-’는 딱딱한 소리인 자음이 겹쳐 발음이 불편하다. 이럴 때 서울 사람들은 원칙대로 발음하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편하게 한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반드타다’라고 말하고, 충청도 어른들은 ‘반드다다’라고 말한다. 쓸 때는 똑같은데 말할 때 발음이 달라지는 것이다.

“행실이 반듯해야[반드대야] 넘덜헌티 구염반년 거.”

“그렇기 꾸부정하게 앓았덜 말구허리 점 뽀뽀하게[뽀뽀다게] 퍼 봐.”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충남의 남부방언이다. 쓸 때는 표준어인데, 말할 때는 달라진다. 머리로는 서울말을 썼는데, 입에선 충청 발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다. ‘무엇하니[무어타니]?’를 충청말로 바꾸면 ‘뫼히[뫼타]? 뫼히[뫼타]?’가 된다. 줄여 쓰면 ‘뫼타? 뫼타?’가 되고, 더 줄여 쓰면 ‘머타? 머타?’가 된다.

발음이 불편할 땐 흔히 ‘ㅎ’을 생략하는 것이 충청도 말법이다.

쓴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법에 익숙한 충청도 어른이 서울에 가 ‘무엇하니?’를 말하면 서울말이 되지 않는다. 머리로는 ‘무엇하니?’라 말했는데 실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뫼타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 본토박이들은 ‘뽀뽀하다’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이는 충청과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얼핏 ‘뽀뽀하다’는 ‘반듯하다’가 강해진 말로 표준어 같지만, 서울 사람들이 쓰지 않다보니 사투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충청도 사람들이 생각할 땐 별 게 아니지만 서울 사람들이 들을 땐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을 쓰는 것처럼 표가 난다.

이런 까닭으로 서울에서 충청도 사람임을 다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올해 쌀 생산량, ‘72만 톤’ 전망

피해극 매입해 시장 유통 방지

충남도 2019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72만 톤 내외를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국 2019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6만~10만 톤 감소한 377만~381만 톤으로 집계됐다.

감소 원인은 등숙 기간에 발생한 태풍 영향으로 도복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쌀 단수(10a당 생산량)도 전년 524kg과 평년 530kg보다 낮은 522kg 내외로 전망됐다. 충남의 경우 쌀 단수(10a당 생산량)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

생산량은 전년보다 1만 1000톤~1만 8000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논 타 작물재배지원 사업으로 면적이 전년 대비 1.3% 감소한 데다, 가을장마·태풍 등으로 도복 및 침수 피해가 전복, 전남에 이어 큰 피해를 본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저품질 상품 시장 유통 방지를 위해 피해극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태풍으로 발생한 수발아, 백수 등 피해 상황과 예상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저품질 상품이 시장 유통 방지를 위해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식량원예과 041-635-4047

향토문화 연구실적도 ‘최고’

문화원연합회 공모 당선 3편

보령·예산·서산문화원 수상 쾌거

‘제34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충남도 내 문화원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24일 ‘34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출품작을 심사한 결과, 총 10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20세기 초 보령 구룡리 화랑마을 황온가(黃穩家)의 혼인용품(婚姻用品) 구입과 부의(聘儀)에 관한 연구(황의호 보령문화원장) ▲

예산의 풍장(農樂) 조사보고서(예산문화원) ▲정다운 우리말 서산사투리(서산문화원)를 주제로 각 분야 공모에 응모했다.

심사 결과, 향토문화논문 부문에서 황의호 보령문화원장이 대상(국무총리상)을, 예산문화원이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부문에서 서산문화원이 최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상)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041-635-9102

“자살예방 위해 전 시·군 합심”

협업과제 보고·공유 나서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자살률 1위 극복을 위한 자살예방 협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안부 묻기 자원봉사 캠페인 ‘안녕! 충남우체국’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과 연계한 사별유가족 자살예방관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가정경제 안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방세(주민세) 면제 ▲문화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총 58개 협업과

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 58개 과제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자살예방 ▲자살위기대응의 2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생애주기(청소년·성인·노인 등) ▲고위험군(우울환자, 건강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대응인력(공무원, 소방관) 등 관련 사항을 분류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유한 실·국·원·본부별, 시·군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추후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에 대응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3

“백제부흥의 중심 논산 역사 담은 공연으로 신바람 소통”

문화사-마당굿

타악·기악 등 퓨전국악 연주
황산벌 주제 창작공연 선포

‘마당굿(단장 정우일)’은 논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통공연단체다. 연극과 사물놀이에 청춘을 바친 정우일 단장을 중심으로 2~40대 아마추어 전공자들이 모여 전통타악과 기악, 무용 등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02년 창단해 18년 가까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마당굿은 논산 문화예술계의 터주대감 같은 존재다. 논산에서 나고 자란 정 대표가 마당굿의 전신인 풍물놀이패 ‘마당’을 1997년 결성하면서 논산 지역에 본격적으로 공연 장르로서 풍물을 소개해 왔다.

연극인이기도 한 정 대표는 앞서 1990년 봄, ‘명칭이네 가게’라는 논산 최초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논산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바



마당굿이 단원들이 무대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람을 불어넣은 그는 2002년 본격적으로 ‘마당굿’을 창단해 타악과 무용, 기악, 연극 등이 어우러진 복합장르의 공연으로 논산 문화예술의 새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정 대표를 중심으로 2~30대 아마추어 전공자들로 구성된 마당굿은 창단 첫해 정기공연을 갖은 이래 도

내 각종 지역 축제·행사를 찾아다니며 이름을 알려왔다. 충남을 대표하는 전통타악단체로 꼽혀 2009년에는 일본 교토를 찾아 초청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매년 한 차례의 정기공연과 논산 소극장 마당에서의 상설 공연으로 주민들과 소통해온 마당굿은 2018년부

터 충남문화재단이 선정하는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돼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공연과 체험학습,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물놀이, 판굿과 같은 타악과 가야금, 해금, 대금, 피리, 아쟁 등이 어우러진 국악실내악을 주요 레퍼토리로 활동해 오던 마당굿은 최근 창작 공연을 선보이며 역량을 넓히고 있다. 정우일 단장이 오랫동안 구상해 온 창작극 ‘민족의 성지-황산벌에서’가 그것이다.

정 단장은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황산벌은 우리 민족운동의 뿌리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황산벌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극으로 만들어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재평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품 ‘민족의 성지-황산벌에서’는 무사의 나라로써 백제의 역동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화동의 울동, 두레종물, 궁중관학합주곡 수제천, 모듬북, 무령지곡, 사물놀이, 장검무, 도당굿 등 다양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통해

황산벌 전투의 기승전절을 표현한다. 마당굿은 오는 1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창작공연을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올린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연은 마당굿의 오랜 신념이자 전통이기도 하다. 마당굿은 지난 2004년 논산의 들, 2005년에는 논산의 노을 등을 주제로 한 기획공연을 매년 선보여 왔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지역의 풀뿌리문화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에서다.

정 대표는 장기적으로 황산벌 전투를 거리에서 재현하는 출정 퍼레이드도 계획하고 있다. 마당굿 단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황산벌로 대표되는 백제의 꿈을 재현한다는 포부다.

정 대표는 “우리 지역 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주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며 “풀뿌리 문화운동이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마당굿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문화행사

영상으로 만나는 연극 ‘인형의 집’

- 일시 : 10월 15일 오후7시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 연극 ‘인형의 집’ 공연이 CJ토월극장과 연결해 중계될 이번 스크린에서는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3막 희곡으로 치밀한 구성과 사실적 대화를 통해 주인공 ‘노라’가 자아를 찾는 과정을 접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879년 초연 이래 여성 해방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문의 : 041-661-8029

충남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일시 : 10월 17일 오후 7시30분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은 1990년에 창단된 국내 최초의 도립교향악단이다. 제179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지휘자 윤승업의 지휘로 첼리스트 주연선이 생상스 첼로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한다.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서곡, 베토벤의 교향곡 7번도 함께 연주된다.

- 장소 : 공주문예회관
- 문의 : 041-856-0778

창작뮤지컬 ‘만해의 불꽃’

■일시 : 10월 25-26일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운 만해 한용운의 불꽃같은 이야기가 창작 뮤지컬로 펼쳐진다. (사)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홍성군 후원으로 제작됐다. 한용운 역할은 성악가 김형기 평택대학교 교수가 맡았

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설록홈즈 등 다수의 뮤지컬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이지연은 임시정부 요원으로 출연한다. 선착순 입장으로 전석 무료공연이다.

- 장소 : 홍성 흥주문화회관
- 문의 : 041-412-5078

베토벤과 카알 in 계룡

■일시 : 11월 8일 오후 7시30분

■베토벤과 그의 조카 카알의 실화를 재해석하여 베토벤의 생과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베토벤과 조카 카알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애정, 그로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카알의 방황과 고뇌, 그리고 베토벤의 죽음. 두 인물 간 극한 감정의 대립은 작품 전개에 김장감

- 을 준다.
-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전당
- 문의 : 042-840-3707

소화제(재즈공연)

■일시 : 10월 29일 오전 11시

■충남문화재단이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준비한 재즈공연이다. 공식 명칭은 ‘소소한 일상, 화창한 어느 날의 재즈 축제’이다. 클래식, 영화 음악, 대중음악, 애니메이션 수록곡, 동요 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재즈로 편곡해 들려준다.

- 장소 : 충남문화회관
- 문의 : 041-630-2913

석장리박물관 특별전

■일시 : ~2020년 2월 28일

■공주 석장리박물관 손보기 선생 기념관에서는 ‘바다를 건넌 선사인들’이란 주제로 흑요석에 대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흑요석은 후기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신석기시대까지 선사시대 인

류에 의해 활발히 사용됐다. 일본과 한국에서 출토된 흑요석계 석기들을 통해 바다를 둘러싼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문화를 이해해보자.

- 장소 : 공주 석장리박물관
- 문의 : 041-840-8924

기미년 이후 백년

■일시 : ~11월 24일

■독립기념관은 3·1운동 및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해 3·1운동에 대한 지난 100년 간의 기억 작업을 살펴보는 특별기획 전시를 진행 중이다. 1919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여 전 민족의 독립 의지와 열망을 보여준 3·1운동은 독립 운동사뿐 아니라 한국사의 한 획을 그은 중대한 사건이다. 3.1운동을 키워드로 본 한국근현대사 100년을 주제로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등 8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 장소 : 독립기념관 특별전시실
- 문의 : 041-560-0114

장르 경계 허무는 파격의 한국산수

변상섭의 그림읽기 민경갑 작 ‘세월(1996)’

먹색과 노란색과 붉은 색으로 화면을 분할했다. 이미지로는 산을 표현했다. 그리고 대나무에 액센트를 넣어 붉은 색으로 처리했다.

유산의 많은 대표작들이 이런 구도를 갖추고 있다. 전통 한국화 장르인 산수·인물·화조도 중심의 표현 형식을 확장하고자 함이다.

‘세월’은 산의 이미지를 통해 대자연의 경이로움,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공존을, 그리고 오방색의 강렬한 색감과 대나무는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응변하는 게 아닐까.

이 작품에는 하단에 대나무를 배치했지만 유산의 자연 시리즈 연작에는 소나무, 매화, 목련 등 전통 한국화에서 단골 도상(圖象)들이 자주 등장한다.

유산은 전통 한국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계승하면서 생생과 소멸의



순환이란 자연의 섭리. 한국적 열과 정서, 고유 정체성을 아우르고 여기에 동시대의 시대정신까지 승화시켜 내려는 작가의 철학과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산은 논산출신이다. 고교시절은

대전에서 보낸 후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한 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면서 국전초대작가·심사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학원 회장을 역임했다.

/변상섭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충청인 기개를 품은 투구꽃

국미나의 꽃이야기

무속신앙의 성지로 여기는 계룡산에는 아직도 많은 무속인들이 터를 잡고 있었다. 자작골 등산로를 따라 연천봉 등운암으로 오르는 길은 동으로는 계룡산(845m)의 주봉과 쌀개봉, 머리봉이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노성면으로 펼쳐진 논산평야의 금빛 물결이 풍요를 낳는다. 등운암 주변은 계룡산에서 볼 수 없는 너른 평원이 펼쳐진다. 자작골을 따라 오르는 길 숲 사이로 햇살이 머물고, 골바람을 품은 보랏빛 꽃무리가 발걸음을 붙잡아 놓는다. 투구꽃이 피었다. 계백장군 오천결사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선다. 멀리 황산벌의 벼가 타들어간다. 산으로 드는 길에도 가을이 익어간다.



투구꽃

가을 산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투구꽃은 꽃 모양이 병사가 쓰는 투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까마귀머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초오’라고도 부른다. 서양 이름은 ‘Monk’s Hood’(수도사의 두건)다. 우리나라에는 20여종이 분포하며 ‘돌쩌귀’라고도 부른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과 충청남도의 역할

내포칼럼



문 대규
순천향대학교 디스플레이
신소재공학과 교수

디스플레이 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은 기술 장벽이 낮은 LCD 위주에서 고난이도의 첨단기술인 OLED 추격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차세대 OLED 핵심소재 공급을 제한하여 국내 산업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유리를 기반으로 한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접거나 말수 있는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와 3차원 공간 디스플레이로 기술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사회·경제·산업적 변혁에 의해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융복합 디스플레이 위주의 다품종 맞춤형 신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추격과 견제를 따돌리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체계적 개발하고,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공정과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산업 제조 혁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퍼블릭-임베디드와 지능형 디스플레이 기술 등 융복합 디스플레이에 의해 새로운 응용 시장을 창출, 초고화질과 무정형

디스플레이 기술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하여 초격차 확보, 초저원가 실현을 위한 차세대 소재·공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은 융복합을 통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선도하기 위한 R&BD(Business Development), 초격차를 위한 패러다임 혁신기술 중심의 R&ID (Innovation Development),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초저원가 소재·공정기술 중심의 R&PD (Production Development)와 융복합-차세대-소재·공정을 연계하는 차별화된 사업화지원-기술확산-생산적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이를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 방식을 혁신함에 의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절대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검증, 인증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충청남도에 세워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시너지를 위한 플랫폼이다.

따라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직화, 체계화, 전문화되어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 사업화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저변이 충청남도에 확대되어야 한다. 충청남도에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고 관련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디스플레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 기업이 절대 부족하다. 충청남도에 디스플레이 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연구개발 주체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환경 급변
중국, 첨단기술 OLED 바짝 추격
일본, 핵심소재 공급 제한 견제

차세대 혁신 공정·소재 개발 시급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역할 기대
융복합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해야

인연의 무게

나태주의 꽃꽂이



시인·꽃꽂이
시인·꽃꽂이

수집벽이 있는 나는 가끔 모아놓은 사진이나 묵은 편지를 정리할 때가 있다. 지난번, 묵은 편지를 정리하다가 스스로 의아스럽고 놀란 일이 있다. 편지 봉투를 뒤지는데 같은 이름의 편지들이 계속 나왔다.

누구지? 궁금한 마음에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았다니 편지 내용이 애뜻했다. 분명 내 편에서도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그런 문면이 되돌아왔음직하다. 그런데, 이름의 주인공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도 얼굴은 물론 그가 누구인가조차 감감했다. 이런 낭패 앞에 잠시 나는 난감해졌다. 어찌지? 이렇게 애뜻한 편지를 보낸 사람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 이것은 정말로 과거에 대한 무례요 인연에 대한 문전박대가 아닌가. 정말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장력이란 것이 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가령 여기 나무 기

둥에 박힌 못이 있다고 하자. 못은 오랫동안 안정되게 나무 기둥에 박혀 있다. 그 못에 못을 걸어도 끄떡 않고 제자리를 지킨다. 이것은 못이 나무 기둥을 끌어당기고 있고 나무 기둥이 못을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렇다.

세월이 가서 못이 녹슬어 가능해지고 나무 기둥이 썩어서 성글어지면 못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가는 특, 하고 힘없이 떨어지고 만다. 장력이 완전히 바닷난 상태다.

나의 경우도 그렇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장력이 떨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의 기억이 특, 기억의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한때나마 나에게 마음을 주었던 사람. 나 또한 마음의 부드러운 속살을 허락했던 사람. 그런데 이렇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되다니! 이것은 매우 미안스런 일이고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그도 또한 나를 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을 달래본다.

그러하다. 사람이 어찌 모든 기억을 끌어안고만 살 수 있는가. 어떤 점에서 망각이 고마울 수가 있다. 과거의 불행했던 일이나 상처를 잊는 일이 그것이다. 다시 한번 그러하다.

마을둘레길, 마을 활성화사업으로

생생현장리포트



임재룡
온양신문사
편집국 실장

아산시시는 지난 7월 ‘걸어서 100세까지’라는 건강 둘레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청춘누림 달빛의 ‘탕정둘레길’, 편편(fun fun)한 차 없는 거리 ‘은행나무길’, 가족과 연인의 건강톡톡 ‘신정호길’, 온천과 함께하는 효(孝) ‘도고천변 온천100세길’ 등 아산지역 특성화 둘레길 4선을 비롯해 충남 서북부 지역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용곡공원 황토길, 현충사 둘레길, 봉곡사 천년의 숲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복잡한 준비물이나 준비과정 없이 간편하게 생수 한병 들고 나설 수 있는 마을 둘레길은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둘레길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개중엔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길도 종종 만난다.

일견 누가 찾을까 싶은 곳에 생뚱맞게 뒹여진 길도 있고, 현지 주민들도 잘 다가가지 않는 악취 풍기는 늪지나, 으스스한 외딴길, 또는 주민들이 트래킹 선수도 아닌데 위태위태한 벼랑이나 깎아지른 듯한 산길에 급경사 계단길을 조성해 놔 걷는 이들이 식은땀을 흘리게도 한다.

필자는 아산시가 ‘걸어서 100세까

지’ 책자를 발간하자마자 지역의 몇몇 동호인들과 함께 이 책자를 들고 대부분의 코스를 직접 걸어본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코스는 도무지 진·출입로를 찾을 수 없었고, 또 중간 갈림길에서 마땅한 이정표가 없어 헤맨 끝에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가 되돌아온 일도 부지기수였다. 적합한 안내시설 설치도 없이 뚱가에 쫓기듯이 부랴부랴 책을 펴낸 느낌이 들었다.

당시 함께 했던 지인 중에는 그래도 취지는 좋은 것 같으면서 이 마을 별 둘레길 코스를 마을 활성화사업으로 연계해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즉, 몇몇 체육 담당자들이 걸어보고 구성한 마을 둘레길 보다는 현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걷는 길, 그들이 직접 가꾸고 안내하는 길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지역 특산물 전시 및 판매시설을 조그맣게 살짝 가미하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걸을 수 있는 길,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꽃길, 숲길, 논밭길, 문화유산과의 연계길, 생태계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길을 닦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인위적인 시설이나 구조물은 피해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조성해야 한다.

갈림길 등에는 안내판을, 중간 중간에 전체 코스를 그려놓고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려주는 정도의 지도를 게시해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인간과 타 존재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충남유교이야기

⑬인물성동이론 혹은 호락논쟁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나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과 같은 심성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현실과 거리가 먼 지식의 유희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과학기술이나 경제발전과 무관하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람의 도덕적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일견 실생활과 무관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현대적 사고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의문일 뿐이다. 인간의 마음 문제만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있을까?

인물성동이론은 인간과 타 존재의 타고난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진행된 논쟁이다. 이 문제는 17세기 기호유학의 거유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의 문하에서 제기되었다. 1709년 이간(1677~1727)과 한원진(1682~1751)의 사이에서 시작되어 7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후 대를 이어 약 200년 동안 그



남당 한원진 영정

후예들을 통해 이어졌다.

온양의 유학자인 이간은 사람과 동물은 품부 받은 기질과 형체가 다를 뿐, 그 안에 내재된 본성은 모두 같다고 여겼다. 그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은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

한편 홍주지역에서 활동하던 한원진은 사람과 타 존재는 타고난 본성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동식물, 사물들은 기질과 형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다른 것이다.

이 인물성동이론은 충남지역에서 벌어졌지만, 이간의 인물성동론을 지지하던 학자들은 주로 경기지역에 많았으므로 그의 이론을 낙론(洛論)이라고도 한다. 한편 많은 호서지역의 학자들이 한원진의 인물성이론(異論)에 찬동했기 때문에 이를 호론(湖論)이라고 한다. 이에 인물성동이론을 호락논쟁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200여 년간 결착되지 않은 논쟁이니만큼 오늘날에도 찬반은 여전히 갈리고 있다. 생태·환경·동물에 호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인물성동론을, 인간의 이성과 우월성을 믿는 사람들은 인물성이론을 지지할 것이다. 다만 이 두 이론 각기 고유의 의미가 있다. 인물성동론은 대자연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동반자들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한편 인물성이론은 사람의 능력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사람이 만물과 차별되는 이유는 만물을 착취하고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지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치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축산 1번지 충남 'ASF' 청정지대 지킨다

인천·경기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축산지역인 충남이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남 도내에서는 1227개 농가가 24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다. 도는 9월 16일부터 운영해오던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지난달 24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대책본부로 격상,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거점 및 통제초소 22개소, 농장초소 145개소를 운영하면서 축산차량 소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ASF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충남의 돼지 사육두수와 ASF 예방수칙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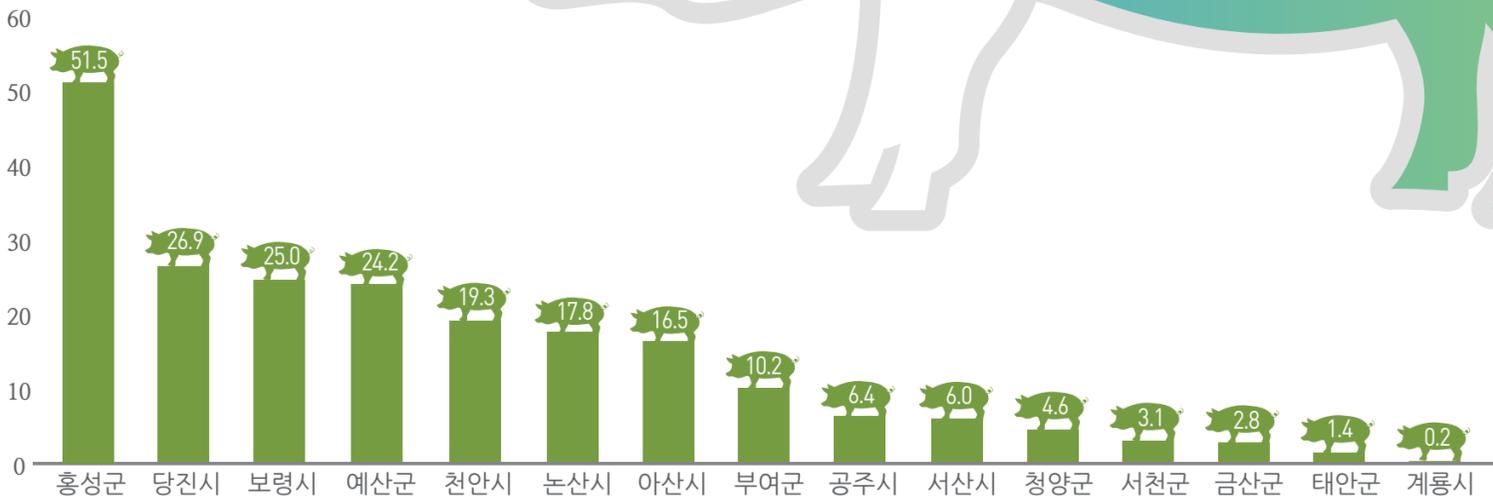
/김혜동 khd1226@korea.kr

전국 돼지 사육두수
1133만 두

충남 돼지 사육두수
240만 2494두(전국 21.2%)

거점(통제)소독시설 :
거점 및 통제초소 22개소, 농장초소 145개소
-> 축산차량 소독 및 통제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 (단위:만 두)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21호 참조

ASF 예방을 위한 농장 준수사항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중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돈 농가에서는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적극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9060, 4060

의심축 발견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

귀촌인이 더 많이 사는 농촌마을 들어봤슈?

더 행복한 마을

(24) 서산 운산면 고풍리

귀촌인이 주민 절반 이상

서로 다름 이해하고 화합 도모

5년 전 창단한 고풍농악단

23명 함께 봉사활동 펼쳐

고풍들 풍년축제 3회차

들밥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



첫 수확을 마친 들녘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주민들



고풍농악단의 모습

명종대왕 태실과 비, 보현사와 문수사, 서산마을삼존불상 등 이름난 문화유적과 용현계곡과 고풍저수지를 비롯해 너른 들판으로 둘러싸인 곳에 운산면 고풍리가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여러 리를 병합하여 고풍리라 이름 붙였지만, 예전에는 자연마을로 고빛, 무릉대, 음산말, 양지말 등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으로 불렸다. 고빛은 고풍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지대가 높아 고비가 많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고, 무릉대는 둔대 밑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상왕을 묻은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

이다. 음산말은 응달이 진다하여, 양지말은 양지쪽이 된다하여 그렇게 불렸다.

2000년 이후 고풍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도로가 인접해 예산이나 서산으로 나가기가 수월하다보니 귀촌인들에게 인기를 얻어 한옥단지 등이 들어서는 등 전원주택지로 개발되기도 했다.

덕분에 고풍리는 농촌마을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귀촌인이 원주민보다 더 많은 마을이다. 전체 108가구에 1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원주민과 귀촌인의 비율이 6:4 정도라고.

최건영 노인회장 역시 귀촌을 통해

고풍리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가 정착하던 초기만 해도 대부분 농사를 짓던 원주민과 귀촌을 목적으로 들어온 이주자들 사이에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 첨엔 화합하기 힘들었어요. 귀촌인들은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경로당에 나가봤어요.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찾던 중 마침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 풍물단이 있어 같이 배우게 됐죠.”

고색동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 23명이 어우러져 5년 전 처음으로 고풍농악단을 창단했다. 농악단은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 때는 물론, 운

산면과 서산시의 부름에도 언제든지 달려가 갈고땀을 실력을 뽐내면서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풍물단은 또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아래 고비실자원봉사클럽을 결성해 마을 가꾸기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지난 4월엔 고풍리 저수지와 용현 자연휴양림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 주변 경로당 도로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벽돌을 쌓고, 땅을 골라 꽃을 심는 등 마을일이라면 손을 아끼지 않고 동참하는 중이다.

주민들의 이러한 활동이 바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부터 고풍들풍년대축제를 하면서부터다.

첫 수확이 이뤄지는 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통해 결실을 맺은 기쁨을 자축하는 것은 물론, 풍년을 선사해준 자연에 감사하며 옛날 선조들과 같이 들밥을 나누며 함께하는 자리를 만든 것. 지난달 25일 열린 3회차 축제엔 서산시와 운산면의 여러 손님들이 함께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최건영 노인회장과 서해권 이장은 “축제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부터 고풍리 산신제를 지내며 힘을 모은 경험이 주민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풍리에선 오래전부터 매년 음력 정월 초에 택일하여 천제 당터와 산제 당터에서 천신과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비용은 주민들이 조금씩 보내고, 제사가 끝난 뒤엔 간단한 회의와 흥겨운 놀이를 겸해 온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주민들은 풍물단을 통해 되살린 농악을 더욱 발전시켜 민속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꿈이 있다.

내년 제4회 고풍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의 멋과 흥을 뽐내는 자리가 될지 더욱 기대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태안 가을바다와 꽃으로 물들다

[태안] '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이 형형색색의 꽃들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세계튠립꽃축제로 유명한 안면도 '코리아플라워파크'가 오는 10월 27일까지 '가을꽃축제'를 연다. '가을 드림(dream)'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가을꽃축제'는 정조·고결·평화·청순의 상징인 국화를 비롯해, 핑크몰리, 코키아, 해바라기 외 다수 품종을 선보인다.

또 '청산수목원'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팜파스 축제'를 진행한다.

파란 하늘 아래 큰 키의 풍성하고 부드러운 팜파스 꽃이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팜카밀레'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9 핑크몰리·세이지 축제'를 열고, 핑크몰리·퍼플몰리·맥



태안 청산수목원에 활짝 핀 핑크몰리.

시간 세이지·파인애플 세이지·체리세이지 등 평소 접하기 힘든 꽃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목원'은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5회 천리포 수목원 열매전시회'를 개최한다.

/태안군 제공

웃다리농학에 충남의 풍류 들린다

새로 배우는 충남학(20)

내포제시조와 충남웃다리 농악

충남의 문화예술은 충남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꾸어온 동질성을 가진 가치적 소산으로 지역민의 여가와 취향을 넘어 충남의 역사적·사회적 컨텍스트를 매개하고 있는 결과물이다.

충남의 전통음악은 '내포제시조'와 '내포풍류'가 조선시대부터 선비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전해져왔고, 중고제판소리가 19세기 이후 발달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내포제시조는 느리면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시김새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노래라기 보다는 시를 읊는 것에 중점을 둔다. 풍류는 선비층이 모여 시를 짓고 연주하며 서로 지도하는 문화로, 충남풍류는 '향제줄풍류'로 활동하였다.

내포제시조는 특정한 문화적 창조의 결과물을 이르는 인문지리적 개념으로,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인 예산·당진·서산·홍성 일대의 독자적인 문화를 타 지역 문화와 구별하여 내포제라 부른다. 1992년 12월 8일 충청남도무형문화제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충남 지역의 판소리는 '중고제'로 이어져왔는데, 평조로 평탄하게 부르는 대목이 많고 정가풍의 창법이 많다. 노래라기보다 마치 글을 빨리 읽어 가는 듯 급히 몰아간다. 중고제는 섬진강 동쪽의 구례·운봉·순창 출신들의 명창들이 많았던 동편제(東便制)나 섬진강 서쪽의 광주·나주·보성 등에서 성행한 서편제(西便制)가 아



충남 웃다리 농악

닌 그 중간에 해당되는 판소리계의 유파로서 경기도 남쪽지방 및 우리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충남 향토음악인 풍물은 경기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웃다리농악'이 대표적이며, 웃다리 농악의 명칭 유래는 충남 공주의 금강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을 웃대, 웃다리라고 하고 먼곳을 아랫대 아랫다리라하여 경기, 충청 지역의 풍물을 웃다리 풍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웃다리 농악의 특징은 가락이 빠르고 힘이 있으며, 맏고 굿음이 분명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충청·경기 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는 대표적인 농악으로 대전의 웃다리 농악, 서울남사당농악, 천안 흥타령농악, 안성 남사당 농악 등이 있다. 충남의 웃다리 농악은 부여의 송순갑 선생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청양에서는 충청웃다리 농악의 확산지로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공주 '버들벼', '맛의 방주' 등재

신석기 무렵 재배 벼 기원 추측

증서를 전달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공주] 공주 향토종자인 버들벼가 국제슬로푸드협회 '맛의 방주' (사진)에 등재됐다.

농업관련 고서인 임원경제지와 조선도품종일람 등에는 버들벼가 한반도에 잔존해 있는 오래된 품종으로 벼농사가 도입된 신석기 무렵부터 공주와 충청도 일부지역에서 재배되었고 '국내의 벼 품종 중 유래와 기원을 추측할 수 있는 벼 종자'라고 기록돼 있다.

보급종 벼보다 낱알이 작고 둥글며 쌀은 단단하고 찰기가 많아서 '밥을



지어 먹으면 달고 구수한 맛이 난다'는 버들벼는 현재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버들미 마을과 계룡면 봉명리, 오곡동 일대 농업인들에 의해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공주시 제공

청양, 고령자주택 내년 착공 의료·주거 복합시설로 설계

상 저소득 어른들이 이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시설과 주거시설이 주택에 마련하는 형태다.

[청양] 청양군 고령자복지주택가 내년에 착공된다. 276억 원이 투입돼 고령자복지주택은 120세대 규모로, 65세 이

청양군은 지난 10일 LH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었다.

고령자 주택에는 시니어카페와 물리치료실 등이 설치된다.

이순금/청양신문사 ladsyk@hanmail.net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으로 해양관광 부흥 꿈

도, 2023년부터 역간척 돌입
해수 유통으로 생태 환경 복원
요트 드나드는 통선문 설치
어민소득 288억 등 유발효과 막대



부남호 역간척 조감도

[태안] 지난 1982년 서산B지구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이후 37년 넘게 태안 읍과 부석면 일원 유역의 물을 담수한 부남호의 수질은 최악인 6등급이다. 담수호 악취로 태안기업도시와 서산 웰빙 특구 내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해 수질문제 해결과 해양도시를 연계시키는 역간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부남호가 형성되지 만 40년만인 오는 2023년부터 해수유통을 통한 역간척을 벌일 계획이다. 부남호 해수유통은 갯벌이 드러나

기수역(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곳)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조제의 구조를 변경하고, 해수유통구 확장 및 요트가 통항 할 수 있는 통선문 설치가 추진된다. 양승조 도지사과 가세로 태안군은 지난 3월 네덜란드 역간척 사업(‘휘어스호’)으로 해수를 유통시켜 다양한 해양생물이 돌아오고 해양레저 관광객이 증가하고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충남도는 전체 방조제의 10%에 해당되는 120m 정도를 통선문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남호 하류와 천수만 상류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퇴적도 준설 후 양식어장의 피해가 없는 해수유통 방안 마련해 천혜의 산란장이었던 천수만 어족자원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역간척이후 복원된 해양생

태환경을 기반으로 태안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를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해양신도시를 조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태안기업도시와 서산웰빙 특구의 활성화를 통해 약 18조원의 생산 유발과 2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천수만과 부남호 일대 4.8km²의 갯벌이 복원돼 연간 288억 원의 어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안군은 마리나항 등 새로운 콘셉트의 해양생태도시로서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골포윤까지 복원해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웅/주간태안신문 shin0635@hanmail.net

日결혼이주여성, 소녀상 지킴이 자처

“소녀상 닦으며 사죄하는 마음”
3년 넘도록 꾸준히 봉사

홀로 서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들의 봉사활동이 시작됐다. 이들의 활동은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돼 왔고, 지난 18일에도 당진 평화의 소녀상과 그 주변을 정돈하는 활동을 펼쳤다. 나오꼬 씨는 “소녀상을 닦을 때마다 늘 역사 앞에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당시 당진에 살고 있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 33명이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에 참여한 바 있다. 임아연/당진시대 zelkova87@hanmail.net



서천 한산면 아산 배방읍과 자매결연

[서천] 서천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진)와 아산시 배방읍 주민자치회(회장 맹준호)는 지난 달 26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앞으로 자치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상호방문, 문화체험 교류와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진 한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이 두 지역의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위원회의 주도로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화 씨 식당에 웃음꽃 피었네

매달 어른신 행복한 식사 제공
“돌아가신 부모님 뵈는 듯”



고춘화 씨(53)와 함께 봉사체 참여하고 있는 루나 씨(37)

[당진] “사실 마음은 있어도 봉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제는 식사를 드릴 수 있는 식당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고춘화 씨(53)는 매달 한번 씩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한다. 그녀는 식당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 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루정도는 어르신들이 든든하게 식사하고 어울리고 노시다가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식사만 하고 가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장소도 있고 음식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즐겁고 또 행복한

날로 있다가 가실 수 있으면 하거든요” 사실 춘화 씨는 어르신들을 뵈 때마다 부모님을 떠올린다고 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6년 전 떠나보낸 아버지를 그녀는 어르신들을 뵈 때마다 부모님을 뵈는 듯한 기분이라고 한다. 배창섭/당진신문 bcs7881@hanmail.net

심훈 다룬 ‘그날이 오면’ 제작

당진호서고 동아리 ‘흰 바람벽’
22분 영화에 독립 정신 담아



[당진] 호서고 영화 동아리 ‘흰 바람벽’이 지난 3개월 간 만들어 낸 영화 <그날이 오면>을 선보였다. ‘흰 바람벽’은 영화를 통해 당진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작가, 저널리스트였던 심훈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했다. 심훈 선생이 필경사에서 상록수를 집필하는 장면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외치던 순간, 그리고 투옥하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내려간 모습까지 모두 22분의 짧은 영화에 담았다. 영화제작 동아리 ‘흰 바람벽’의 이

름은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따온 것이다. 백석 시인이 바라보는 흰 바람벽에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려진다. 첫 촬영은 논산 선사인랜드에서 진행된 만세운동 장면이었다. 심훈 선생이 만세운동을 부르짖고, 유관순 열사와 마주치는 장면이 삽입된 부

분이다. 이외에도 심훈 선생이 글을 집필하고 당진 소식을 들었던 필경사와 <상록수> 최영진 역의 최용신 선생과 조우하는 우강평야,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의 소식을 들었던 면천의 책방 오래된 미래, 투옥된 의산 교도소 세트장 등 당진을 넘어 전국 곳곳이 촬영지로 사용됐다. 심훈 선생의 시 <그날이 오면>을 가사로 한 주제곡이 흐른다. 이 노래 역시 호서고 송준호 학생이 직접 녹음했다. 영화는 오는 9일에 열리는 충남도교육청 꿈민정음 한마당 개막식에 초대작으로 상영되고, 11월에 열리는 당진교육지원청 수업축제에 상영된다. 유튜브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수미/당진시대 d911112@naver.com

태안화력 3·4호기 LNG로 바뀐다

서부발전 이사회 통과
LNG 발전소 신축 부지 물색

근 열린 이사회에서 2029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태안화력 3·4호기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같은 용량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의결했다는 것. 서부발전 관계자는 “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보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고 이사회 분위기를 전한 가운데 서부발전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3·4호기가 1·2호기처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지난 달 한국서부발전에 따르면 최

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사회 의결 내용이 올해 말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1·2호기를 대신할 LNG 발전소 신축 부지도 찾고 있다. 신문웅/주간태안신문 shin0635@hanmail.net

홍성 허브, 천연 화장품 공급망 확보

신소득 대량생산 기대감

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

[홍성] 전국 유일 유기농 특구 충남 홍성군에서 친환경 허브가 화장품 가공 시장으로의 공급망이 확보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군은 지난 달 지역 허브 및 특수채소 생산·유통 업체인 ‘(주)파머스 허브’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케어하우스’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유기농 허브 공급 사업을 위

이번 협약은 천연화장품 제조 기업인 ‘(주)케어하우스’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로 홍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허브가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천연 화장품 재료공급과 함께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 (주)파머스 허브 김석찬(40)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부 품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향후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홍성군 제공



매실한과로 일군 농촌융복합산업 성공 신화

당진 백석올미영농조합

33명 할머니 조합원으로 시작
매실한과·조청·장아찌 등 생산

“내가 건강하고 즐거울 수 있고, 자식들 용돈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위축됐던 스스로에게 뿌듯함이 생겨서 좋아요!”(전통4대장·조청 할매 66세 황오연)

“집에 있으면 아파도 여기로 일하러 오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평생 집에서 살림살고 농사짓고 손주들 봐주면서 지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월급도 처음 받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어깨가 짝 펴져요~”(한과 할매 76세 김인순)

“귀농만 9년째지만 이제 막 날갯짓하는 4개월 된 병아리 할매예요. 언니들한테 잘 배워서 멋진 백석올미 할매가 될 거예요!”(햇병아리 할매 59세 한신숙)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순성면 백석리



백석올미영농조합의 메인 포토존에서 할머니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에는 뜻있는 할머니들이 마음을 모았다. 백석리 부녀회 마을사업에서 시작한 백석올미영농조합은 농촌마을 소득사업을 위해 부녀회원 33명의 짝짓돈 200만원씩을 출자해 당진 쌀을 이용한 한과생산 판매를 계획했다.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어촌개발사업

을 부녀회가 시작했죠. 농촌 부녀회는 사실상 할머니들뿐이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또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소득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웠으니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부녀회가 모여서 생각했지요”

33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 순성에서

나는 매실로 매실한과를 탄생시키고 12년도에 마을기업으로, 14년도에는 도가 지원하는 6차산업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백석올미영농조합은 자립형 사회적기업이 됐다.

자립한 사회적기업으로 현재는 83명의 조합원과 20명의 할머니들이 백석올미영농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백석올미가 자립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들의 ‘능력’에서 비롯됐다. 김금순 대표 할머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만화를 보여주겠다고 웹툰화 예정중인 ‘할매들의 반란’을 살짝 보여줬다.

“백석올미의 역사를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서 만화에 담았어요. 처음은 해나루 쌀을 이용한 한과로 시작했지만 크게 인기가 없었던 어려움도 겪죠. 그러다가 한 할머니의 실수로 매실한과가 탄생하게 되고 또 조청을 기막히게 잘 만든다는 할머니의 노하우로 조청이, 장아찌 천재라는 할머니의 장아찌를 상품화 하는 등 우리 땅, 우리 동네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 동네 슈퍼처럼 백석올미를 채워간 오늘이

다 담겨있어요”

알면 알수록 맛있고 재밌는 백석올미영농조합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을 계절별로 전문가 할머니들과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이를 토대로 김 대표할머니는 방문객과 지역농산물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농촌마을 히어로급 능력을 자랑했다.

하루하루 또 다른 발돋움으로 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는 할머니들은 6월부터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된장, 고추장등의 장류와 농산물을 당진 관내 학교로 제공하고 있다. 학교마다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할매표 안전먹거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할머니들은 설명했다.

으뜸 올[기], 맛 미[미].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백석올미영농조합은 우리나라의 대표 할머니 브랜드로 당진을 전국에 알리는 1등 할머니가 될 목표로 즐겁다.

배창섭/당진신문
bcs7881@hanmail.net

독일서 인정받은 당진의 ‘돈세지’



당진 신평면 김지선 씨
육가공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식육가공기사 자격시험 합격

당진 출신의 30대 청년이 세계 육가공 대회에 출품한 4개 품목 모두 금메달을 수상했다. 소시지의 고향인 독일에서 한국식 소시지로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70년 전통의 국제 식육 및 육가공 박람회인 IFFA 2019가 지난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제육가공품 품질경연대회가 함께 진행된 가운데, 당진 출신의 김지선 씨(31·신평면 금천리)가 4종류의 소시지와 햄을 선보여 출품한 전 품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독일

의 대표 음식인 소시지를 현지에서 인정받은 그는 국내에 단 25명밖에 없는 식육가공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신평면 남산리에서 30여 년 간 양돈업을 해온 부모님 밑에서 자란 김지선 씨는 12살 무렵부터 새끼돼지를 옮기거나 밥을 챙겨주는 일을 도왔다. 오랜 시간 동안 양돈업을 하는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김 씨는 꿈을 키웠다. 부모님의 일이 자랑스러웠던 김 씨는 가업을 잇기로 결심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2008년 제주대 동물생명공학과에 입학, 가축사육부터 육

가공까지 시야를 넓혔다.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온 김 씨는 당진축협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홈페이지마스터(독일식 즉석육가공전문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육가공 공부를 시작했다.

올해 학교에서는 김 씨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해 그에게 3년 마다 열리는 국제 식육전문 박람회의 메인행사 중 하나인 국제육가공품 품질경연대회에 출품할 것을 제안했다.

결전의 날, 그는 ‘돈세지’라는 이름을 달고 소시지와 햄 네 종류를 선보였다. 대회에서 그는 배추김치와 총각김치를 이용한 김치 소시지 두 종류와 참깨·들깨를 넣어 만든 프레스햄 두 종류를 출품했다. 긴장되는 발표의 순

간, 그의 성적은 4개 품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다. 식감·모양·냄새 등 세부항목 모두 50점 만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대회를 마무리한 그는 최근 육류산업의 급속한 시장 변화에 맞춰 식육가공분야의 식육가공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작은 공장을 차려 직접 소시지 등 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다”면서 “농가와 계약해 채소가 많이 들어간 소시지를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도 보전하고, 한국의 육가공 시장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아연/당진시대
zelkova87@hanmail.net

주민자치위원회 나서 축사분뇨 냄새 해결

주민자치번지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위원회 조직 공감대 형성
청소년100인토론회 등 개최



신평면주민자치위가 개최한 청소년100인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평면 거산리 일대는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면내 최대 변화가다. 신평면 인구의 약 절반인 7000여 명의 주민이 9개 단지 2420세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면 특성상 거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일대 지역은 축산업 밀집지역으로 악취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해왔다.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축산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은 평생을 지내 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도 없었다.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축사갈등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와 축산 농가 간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민-농가 간 공감대를 형성했고 축

산 농가 전체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주민 화합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 각 50명씩 총 100명을 공개 모집해 6개 분야(관광과 놀거리,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복지, 교육·환경, 생활·자연)에 대해 현안을 발굴해보는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냈고 최종적으로 방과후 청소년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자치문화센터 건립안을 최종 선정했다.

위원회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마

를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각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묻고 사업화해 행정에 건의했다. 현재는 오후가 무료하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으로 취양에 맞는 옛 영화를 상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형 주민자치 시행 전부터 추진하던 신평면 가을콘서트에서는 민·관·유관단체와 연계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이밖에도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위한 영화감상제, 신평 지역발전 대토론회 등 자치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중 제과·제빵 전문가와 도예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100명이 직접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하고 도자기 빚기 체험 등을 추진,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했다.

《충남형 동네자치 성과와 방향》 사례집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상식’



사서들의 서재



《최진기 / 스마트북스 / 2018》

이 책의 저자는 대림산업, 동부증권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대중강사인 최진기이다.

이 책은 경제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 그는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나가는 학문이다.”라고 말하며, 뚜렷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재미있는 경제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 파트는 고등학생도 아는 경제상식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아주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을 설명해주고 있다. 기초중의 기초를 공부하고 나면 좀 더 세부적인 개념들인 금리, 채권, 통화, 경기정책, 경제지표, 환율, 세계경제, 주식시장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경제는 단순히 돈과 관련이 있어 난 돈에 관심이 없으니 머리 아프다고 제쳐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물론 이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경제에 대해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신문을 혼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으로 세상을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아름
충남도서관 사서

지역사진관 활성화 돕는다



김기영 의원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사진관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 활성화 지원,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추진, 지역사진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사진관이 쇠퇴하고 있다”며 “지역사진관이 변화하는 사회에 도태되지 않고 지역의 특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 실효성 점검 장치 도입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공주1)이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도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시행 중인 조례의 자가 점검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장수기업 육성·지원 확대



김득응 의원

김득응 의원(천안1)이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보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범장수기업은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소재지로 두고 제조업 등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당진2)이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지원계획 수립·시행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취소·회수 ▲연구개발·시범사업 추진 ▲소비자와 종사자 교육훈련 ▲쌀 홍보관 전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농민 생활이 안정되고 더욱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고품질의 쌀을 소비자들이 찾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자립 경영 돕는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청양)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은 성장단계에선 금융조달 수요가 높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금융지원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사회적기금 설치 근거와 존속기한, 기금 조성 및 용도, 운용 관리·계획,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그동안 일반 금융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비주류의 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충남의 경제 주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36개월까지 아기수당 지급



김연 의원

김연 의원(천안7)은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해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 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충남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또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농어업인 복지 대폭 향상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비례)이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과 권익보호, 복지·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보조기구 보급,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영유아·아동과 노인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 마련



김한태 의원

김한태 의원(보령1)이 ‘지역 문화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과 연계 가능한 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필요한 재원 확보, 관련 시책과 사업 추진, 생활문화시설 사용·제한사항, 센터 및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한태 의원은 “도민들은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문화 향유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대표 ‘기술 명장’ 육성



방한일 의원

방한일 의원(예산1)이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기술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 대표 명장 선정을 위한 선발 기준과 규모, 자격조건과 지원 내용, 심의·의결 기구 구성 등의 조항을 담았다.

방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숙련기술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충남 기술인들의 전문성을 적극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한다



양금봉 의원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어장환경개선 및 생산관리시설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단체 포상 등의 사항이 담겼다.

양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어가소득이 증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에 작은 영화관 키운다



여운영 의원

여운영 의원(아산2)이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은 영화관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 작은 영화제 개최, 경비 지원 등의 조항을 담았다.

여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영화 관람객 수가 1억 명을 넘기고 있음에도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문화적 격차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안전용품 지원한다



황영란 의원

황영란 의원(비례)이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각종 자연·사회재난과 사고발생 시 재난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또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관순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식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블루오션’ 곤충산업 육성 토대 마련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태안2)이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개발·연구사업·상품화 지원,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곤충 사육 및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구축, 곤충 생산단지·체험학습장 조성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우수한 곤충 종자 개발·보급과 질병발생 관리체계 구축, 사육환경 기술개발·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승만 의원

조승만 의원(홍성1)이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은 행사나 회의 주최시 재난상황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품 안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교육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해 홍보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후손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부실공사 방지 제도화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아산3)이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학교 신설 등 충남도교육청 건설공사의 부실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 측정과 현장점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공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실공사 여부와 부실등급·별점, 신고 포상액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조 의원은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고 밝혔다.

문화산업에 ‘ICT 기술’ 입힌다



최훈 의원

최훈 의원(공주2)이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분야인 ICT 기술을 문화산업에 접목시켜 ‘ICT 융복합 문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진흥원 명칭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관련 기업·정부사업 유치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분야에도 IC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교육 대상 전 도민으로 확대



한영신 의원(천안2)이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도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 대상을 현행 공무원과 학생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 의원은 "충남의 현주소를 전 도민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자치 활성화 기구 설치근거 마련



홍기후 의원(당진1)이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설치된 운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교운영위 지원과 상호 협조사항, 주요 심의사항 관련 정보교환,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홍 의원은 "협의회는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해 명실상부한 학교 자치기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분발언

농어민기본수당 조례제정 적극 동참해야



이선영 의원은 지난 1일 제 31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농촌마을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어촌은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식량무기화에 대비하고, 식량생산기지의 보존, 환경적·생태적·경관적 공익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농어민에 대한 적절한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임금보장 시급



지정근 의원은(천안9)은 1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가축 살처분 근로자를 격리 조치하고 임금을 보장해주는 등 대응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허점이 풀린 것은 실시간 현장상황판단과 대응력 부족 때문"이라며 "전국 최대 돼지사육두수를 자랑하는 충남에 '돼지흑사병'으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비비·재난기금 집행과 대응지침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주민 의견 담아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1일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내륙권 물류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이라며 "노선이 임존성 문화재와 슬로시티, 주거지 등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돼 지역 주민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항국가산단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이 서천군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서천군은 18여 년간 실행도 못하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발이 묶였고 도내서조차 다른 정부사업에 배제되는 등 역차별로 개발이 뒤쳐지면서 농촌 소멸 1순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외국자본과 국내 우량기업을 장항국가산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상향,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정주·문화여건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이스(MICE) 산업 키워야

여운영 의원(아산2)은 1일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굴뚝없는 황금산업인 마이스 산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이스 산업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나 전시박람회, 관광 등 행사를 유치해 숙박과 교통, 관광, 유통 등 여러 산업과 결합한 형태의 복합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여 의원은 "일산의 킨텍스나 부산의 베스코 처럼 규모가 큰 시설 뿐만 아니라 경북 청송이나 스위스 다보스 같은 작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많다"며 "마이스 산업은 단순 레저나 관광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원수 식재로 양봉산업 키워야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은 1일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수 추가 식재와 기후변화에 맞춘 밀원식물 개발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로 생태계에 균열이 가면서 벌꿀 생산량이 감소되는 추세"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표적 밀원수인 아까시나무의 경우 목재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조림을 기피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밀원수 개화기간이 감소하면서 벌꿀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도내 귀중한 산림을 가지있게 활용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원시론

청산리 100주년 기념 준비하자



금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의 성지인 천안에서는 물론 홍성에서도 홍주 의병활동 근거지로서 조양문 앞에서, 금마면 철마산과 장곡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다.

충청도는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서 의리가 있고 의협심이 강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의병활동 등으로 분연히 일어나 침략자들과 맞서 싸운 애국선열들이 많아 자랑스러운 충절의 고장이며 문화와 예술을 선양하던 예향의 고장이다.

특히 필자가 살고 있는 홍성에서는 홍주성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했으며 개인의 영달보다는 오로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효 열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역사적 인물로는 고려 말에 충신 최영 장군과 조선 초기의 집현전 학자이며 사육신이신 성삼문 선생, 조선 중기에 왜구를 물리친 임득의 장군,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 3천 여명을 대파한 청산리 대첩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 승려이시며 시인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 고암 이응로 화백 등 수 많은 역사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그러하여 홍성군에서는 매년 역사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역사인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를 중심으로 역사인물축제를 할 계획인데, 승려이자 시인으로서 훌륭한 문학사상과 독립운동 정신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백야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재산을 노비들에게 나눠주고 해방시켰다.

김좌진 장군은 정작 이역만리 만주벌판에서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죽음을 무릅쓰며 조선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 청산리에서 3000여명을 대파한 크나큰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과 자존심을 세워 준 영웅이다.

내년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김좌진 장군의 위업을 널리 선양해 자라나는 후세들과 전 국민들에게 송고한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성역화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주차장도 부족하고 볼 것도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성역화와 호명학교 복원 등 나라사랑 정신 교육장으로 조성함은 물론 장군의 업적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과 뮤지컬 등을 만들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지난 도정질의회 도지사 순방 시, 또한 지난 8월 31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시 본회의장에서 충남도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홍성군과 함께 100주년 기념행사와 성역화사업 등을 추진해 줄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역설했다.

내년 청산리 100주년을 맞아 성역화추진과 함께 짜임새 있게 준비해 장군의 송고한 독립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뜻깊은 계기를 충남도 차원에서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지난 9월 17일 서해대교 아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현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2015년 6월 3일 접수돼 2016년 10월 13일 1차 변론 이후, 거의 3년 만에 열린 2차 변론으로 '충남땅 되찾기'를 위한 장도(壯途)의 지난함과 중차대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변론을 지켜보면서 승리의 여신이 우리 충남도 민에게 환하게 웃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이어질 법정과정을 통해 당진항 매립지가 과거에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땅이 만천하에 알려지기를 바란다.

사실 매립지는 '충남 땅'이다. 국토해양부의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1992.5.7)에 근거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관할 분쟁은 이미 15년 전에 충남 땅으로 결정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을 인정해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제4조) 개정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법 개정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의 경우 행안부장관이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결정면적의 약 70%(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를 평택시로 결정하면서 당진땅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는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를, 현재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행안부의 결정이야말로 지자체간 분쟁을 국가와 지자체 간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충남도민들 또한 이미 헌법재판소가 행정관습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의 기준이라는 것과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지방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만으로 도(道)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한 행안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도(道)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안부의 그릇된 결정이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17만 당진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 모두는 2004년에 실제적,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자치행위를 해오던 충남의 땅을 넘겨줄 수 없고 반드시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주민들이 앞장서 1500일 넘게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에 잘못 귀속된 우리 땅을 수복하고자하는 염원에 모두 하나가 된 것이다.

충남 땅은 충남도민의 것이듯, 충남바다를 매립했으면 매립지 역시 충남도민의 것이다. 이 간단하고 명쾌한 이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3차 변론이 남았고 얼마 지나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법적다툼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충남도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도민 모두의 열망대로 충남 땅 수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회보험료 1785억 지원, 고용불안 해소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6200억 확충
- 지역화폐 발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생활밀착형 조례 챙기고 예산은 꼼꼼이 살피고

제315회 임시회 53개 안전 심의
도민 복지 증진 위한 조례
실국별 출연계획안 등 심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 등 모두 53개 안전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4건을 심의한다.

2020년도 실국별 출연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마이스(MICE) 산업 육성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을 주제로 제안하고, 일선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와 대천항 관공선근무자 통합사무실 신축부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부여군 불법 방치 폐기물 현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당진항을 각각 방문한다.

유병국 의장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SOC와 문화체육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충남이 홀대받지 않도록 정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8일 시작한 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며 "많은 분이 충남을 찾아 즐기고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더욱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 근무자 격려 충남도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30일 오전 충남도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재표 1부위원장을 비롯해 홍성운 지역구로 둔 이종화 2부위원장과 조승만 의원도 집행부의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사태 장기화 예상에 따른 근무자들의 건강 문제와 돼지 이동제한 조치 실효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모색

김은나 의원, 의정토론회 개최



책은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돈대기나 도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의존 정도에 따라 사이버 일탈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 예방교육과 부모교육 상설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대상연령과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오후 천안 쌍용중학교 체육관에서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이미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신재성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월봉고3학년)과 이종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한봉근 쌍용중학교 운영위원장, 김병갑 충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관, 장효순 충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 계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문제적 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문제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논의

재정거버넌스 구축 연구모임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27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과 김연 문화복지위원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운영이 이뤄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도 재정운영 프로세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4)은 지난 19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된 '지역에너지계획 도민참여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경우 도민, 관계 기관과 기업,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립·시행되는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및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용역 수행기관 4개사는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과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안장현 의원은 "지역별 차별화된 에너지 수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역에너지 경제 성장 및 국가에너지 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기간: 2019. 2. 1. ~ 12. 31.

- 제보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제보방법

- 인터넷: 하단의 「도민제보 바로가기」
- FAX: 041-635-5283 / 문의전화: 041-635-5083
- 방문 및 우편: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우편번호 32416)

-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을 보장합니다. -